



유로존 2/4분기 마이너스 성장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재정위기 본격화로 유로존 경제는 2/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

- 2/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로는 각각 -0.2% , -0.4% 를 기록
- 1/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지 않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¹⁾은 피했지만 연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 확실시 됨.

■ 유로존의 경기 후퇴는 지난 2009년 말 이후 두 번째인데,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.

- 독일 경제는 전분기에 비해 0.3% 성장(1/4분기 0.5%)에 그쳤음.
 -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무역수지 흑자와 소비 증가로 미약한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
 - 그러나 독일 경제가 수출 의존적²⁾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할지는 의문시 됨.
- 프랑스 경제는 전분기 대비 0% 증가(전년동기대비 0.3% 증가)하여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 성장은 면함.
 - 경제활동 주축인 소비가 10% 를 넘는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긴축을 앞두고 위축되었음.
 - 프랑스 중앙은행은 2/4분기, 3/4분기 성장률이 모두 -0.1% 를 기록, 경기후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음.

■ 반면,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함.

- 스페인(-0.4%), 이탈리아(-0.7%), 포르투갈(-1.2%) 모두 전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하였으며 북유럽의 핀란드도 -1.0% 를 기록함.

1) 경기침체로 정의.

2) 독일은 GDP의 약 40% 를 수출에 의존.

- 특히 그리스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6.2% 감소하여 200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.
- 이들 국가의 경기둔화 또는 경기침체는 수출이 줄고 투자와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원인임.

■ 유로존 경기를 좌우하는 독일 경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음.

-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둔화가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수요가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당분간 괜찮다고 전망
-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3/4분기부터 독일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
 - JP모간은 세계 경제 둔화로 제조업 등 독일 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
 - 로이터는 최근 산업 생산이 후퇴하고 신규 공장 주문이 감소하는 것 등은 성장률 하락의 전조라고 진단
 - 도이치은행은 이번에 나온 경제지표 호조는 다음번 지표의 둔화를 의미한다고 언급

(Bloomberg, 8/15)